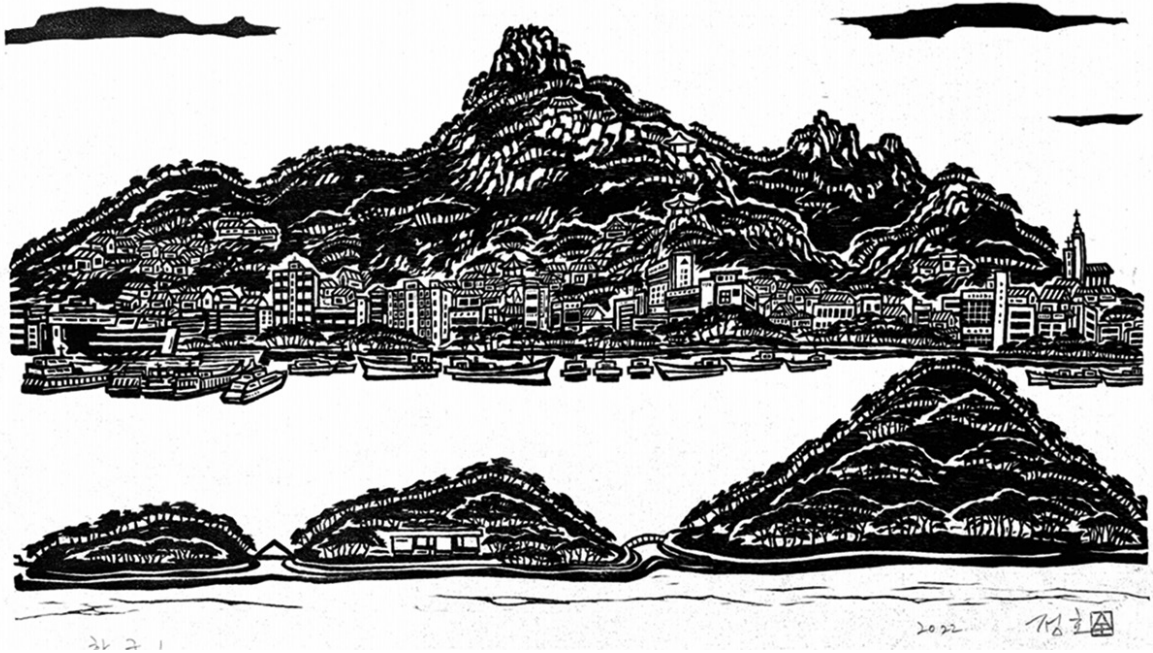


# 목포의 마을 많다



(사)목포환경운동연합 창립25주년 기념 - 전정호 작가 [항구]

## 목 차

02 창립25주년 인사글

03 기고문

06 회원기고

08 독후감

09 활동보고

11 회계보고

13 환경영화 / 서적

14 환경상식

15 전시회 안내

16 신입회원 안내 / 광고

# (사)목포환경운동연합 창립25주년을 함께 축하 합니다

목포환경운동연합은 창립 이후 지금까지 환경오염과 공해를 추방하고 인간과 자연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쉬 없이 전진해왔습니다. 1998년 영산강 4단계사업 백지화와 바다 모래 채취 중단을 이끌어낸 이후 최근 삼학도 호텔 백지화 싸움에 이르기까지, **가열한** 투쟁의 현장에서, 생생한 환경교육의 공간에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의 광장에서 시민들과 부대끼며 실로 많은 일들을 해냈다고 감히 자부하면서도, 돌이켜보면 부족하고 아쉬운 점들 또한 결코 적지 않습니다.



창립 25돌을 맞이하면서 목포환경운동연합은 과거에 머무르거나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 계속 나아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난해 공익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책임과 권한을 책임있게 구현하고자 목포환경운동연합을 비영리공익법인인 사단법인 체제로 전환한 데 이어, 창립 30돌이 되는 2027년, 목포환경운동연합의 획기적인 전기를 이루고자 **2030위원회**를 두고 중장기 발전방안을 모색해왔습니다.

창립 25돌 행사를 마치며 전문가 초청 토론회와 시민 설문, 회원 의견 등을 반영하여 오는 10월에 목포환경운동연합의 조직강화와 회원 확대·소통, 재정자립과 투명성 제고, 사업목표와 중장기적 과제, 정책연구역량과 환경교육 강화 방안, 조직·재정·사업·정책·교육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중장기 전망을 담아내고자 합니다. 치열한 내용에 유쾌한 형식을 접목하여 젊고 활기찬, 즐거움과 상상력 넘치는 목포환경운동연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목포환경운동연합은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지 않고, 회원의 회비와 후원금으로 운영되기에 살림살이는 늘 빠듯합니다. 시도때도 없이 일어나는 환경문제와 지역현안을 세명의 활동가로 다 대처하기란 늘 일손이 달립니다. 재정적으로 후원해주시며, 자원봉사로 일손을 덜어주시고, 현장에서 함께 수고해주신 회원·시민 여러분께 무어라 감사를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25개 성상을 달려오며 목포환경운동연합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회원 여러분, 그동안 지지와 성원, 비판과 충고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과 이번 창립 25돌 행사에 귀한 작품들을 흔쾌히 내주신 네 분의 목포연안환경미술행동 작가님들께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올여름 무더위와 장마를 잘 이겨내시고 다시 뵙는 날까지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

글 | 임경숙 목포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지난 7월 5일 윤석열 정부는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골자는 원전 비중은 늘리고 재생에너지 비중은 줄이는, 한마디로 원전 만능정책이다.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을 내세우며 새로운 에너지 수업을 근거로 설명했으나, 사실상 온실가스 추가 감축 계획은 없고 원전 비중의 무리한 확대만 강조됐다.

## 원전 만능정책으로는 기후위기를 막을 수 없다

구체적으로 먼저, 2021년 기준 27%대의 원전 비중을 2030년까지 30%로 확대한다지만, 그때까지 신규원전 건설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기존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명이 다한 노후 원전을 ‘계속 운전’이라는 미명 아래 무리하게 가동시킬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원전의 수명은 대략 30년 정도이다. 30년 동안 계속 사용하면 기계는 노후하게 되고 그 이후부터는 그냥 기계가 아니라 방사능 폭발 위험이 잠재된 핵무기로 돌변한다. 2011년 일본 대지진으로 일어난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는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 발생은 자연재해였지만 원전 폭발 사고는 확실한 인재였다. 후쿠시마 제1원전 중 폭발한 1.3.4호기는 모두 수명이 다한 후 수명 연장한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원전 비중 확대에 따라 화석연료 에너지원의 비중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줄어들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국가들이 재생에너지 목표를 상향함은 물론 유럽연합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빚어진 에너지 안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REpowerEU를 통해 재생에너지 의존을 강화하겠다고 나서는 상황에 한국의 재생에너지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유럽 뿐 아니라 세계적인 흐름은 RE100(재생에너지 100%), 탄소 중립을 논하는 사이 우리나라는 미세먼지의 주원인인 석탄발전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유명해진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내용의 국제적 캠페인이다. 그리고 이미 세계적인 기업들이 앞다퉈 RE100을 선언하고 계획대로 목표를 향해 가고 있는데, 새 정부의 기조가 바뀌면서 우리나라의 수출기업들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혼란스러울 것이다. 왜냐하면 수입하는 국가에서는 RE100 국제적 약속을 내세울 것이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했던 흐름이 부정되고 있는 상황이니 새로운 계획을 다시 만들어야 하는 등 비용 발생에 대한 부담을 가지게 되었다. [다음 페이지로 이어집니다](#)





## 최근 유럽의회의 실망스런 결정

최근 유럽의회가 찬성 328, 반대 278, 기권 33으로 원자력발전을 친환경에너지로 분류 결정했다. 방사성 폐기물 등 문제가 있지만 ‘과도기적 역할’을 할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덴마크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등 국가들과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유럽의회의 결정으로 마치 원전이 친환경에너지인 것 마냥 생각하는 건 잘못이다. ‘과도기적 역할’이란 말속에 이미 원전은 불완전하다는 것이 내포돼 있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생긴 에너지 위기가 이번 결정에 한몫했기 때문이다. 원자력은 안전하지 않고, 폭발사고로 방사능에 피폭되면 여러 질병에 노출될 뿐 아니라 많은 양의 피폭으로 사망에 이르는 반환경적 반생명적 에너지임은 이미 수없이 입증되었다. 건설하는 과정에 많은 탄소배출을 할 뿐 아니라 수명이 다한 후 작업자의 장갑부터 발전소 안에서 사용된 방사능에 노출된 모든 것들은 농도에 따라 **고·중·저 폐기물**로 분류돼 최고 10만년까지 밀폐보관해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로 폐로 결정된 고리1호기는 어떻게 폐로해야 하는지,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드는지 알 수 없는 비경제적이며, 위험한 에너지라는 것도 말이다.

원자력발전소가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는 미국, 중국, 프랑스, 일본, 러시아, 그리고 우리나라도 상위권에 분류된다. 그런데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가 일어난 나라는 미국(쓰리마일), 러시아(체르노빌), 일본(후쿠시마)이다. 이렇듯 원자력발전소가 많은 나라에서 사고가 일어났다. 더욱이 원자력발전소 밀집도가 국토 대비 세계 1위인 우리나라는 절대 안전하지 않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를 보더라도 사고가 난 지 30년과 10년이 넘었음에도 출입 통제되고 있는 것은 아직도 많은 양의 방사능이 있기 때문이다.

## 태양·바람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중심 정책을

정부는 한정된 수입에 의존된 석탄, 석유, 천연가스, 우라늄 등을 위한 발전시설 확대가 아닌 우리에게 무한한 에너지를 주는 태양, 바람을 이용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고민해야 한다. 또 사양산업인 원전산업에 치우친 정책을 계획할 것이 아니라 세계가 당연한 기후재앙을 타개할 방법을 모색하고 실효적인 온실가스 감축 계획과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무척이나 후텁지근하고 더운 여름날, 무분별한 새 정부의 퇴행적 에너지정책은 우리를 더욱 열받게 한다.



# 도심 속 오아시스 - 옥상 텃밭

글 | 도시환경위원회

지난 6월 17일자(온라인판) 「한겨레」에는 ‘도심 속 오아시스 - 옥상 텃밭’ 기사가 실렸다. 기사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서울시 광진구 자양 우성아파트 옥상에는 가로 1m, 세로 3m 식물 재배용 플라스틱 상자 80개가 자리 잡어 이 상자 속에서 당근, 오이, 고추, 들깨, 결명자, 생강, 방울토마토, 당귀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 이곳 주민들은 2015년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7년째 옥상 텃밭을 가꾸어 오고 있다. 지금은 아파트 주민 15명이 채소와 과일을 재배하며 햇빛 아파트에 푸르름을 더해주고, 가꾼 농작물은 함께 나눠 먹고 있다. 한 주민은 “텃밭을 함께 가꾸며 이야기를 나누자 삭막한 아파트에서 겪지 못한 이웃과의 정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한다.

농업이 주는 치유 기능이 주목받으면서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0년 15만3000명이었던 도시농부는 2020년 184만8000명으로 약 12배 늘었고, 텃밭 면적도 104ha에서 1060ha로 10배가량 증가했다. 도시농업이 주는 사회적 순기능도 또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도시농업 참여자들은 정서적 친밀감과 공동체 의식이 참여 전보다 높아졌고, 스트레스 지수도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농촌진흥청이 2020년 도시농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이전보다 각각 56.5%, 20.9% 감소했다.

경제적 효과 또한 무시할 수 없다. 건물 옥상을 농원화하면 냉난방비를 16.6% 절감할 수 있고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로 재활용할 수 있는 이점도 덩으로 생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도시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활성화 방안 연구’에선 옥상 100㎡를 녹화하면 매해 2kg의 오염물질을 줄이고, 온실가스를 22.75kg 저감할 수 있어 성인 2명이 호흡하는 데 필요한 산소를 만들어내는 효과가 있다. 도시농부 180만 시대. 도시지역의 자투리 공간인 건물, 옥상, 베란다, 골목길 등을 이용해 식물을 키우고 나누는 도시농업은 도심 속 오아시스다.

우리 목포지역도 「목포시 친환경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16.4.11.제정)를 적극 활용해 재정지원 등 친환경적인 도시 텃밭을 적극 권장 추진할 필요가 있다. 먼저 공동주택 옥상부터 시작하는 것도 좋겠다.

@한겨레신문





## 자전거의 역습을 도우라

글 | 우성주 회원



2019년 목표는 '자전거 도시 브랜드화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지역 맞춤형 자전거 활성화 정책 모델의 좋은 사례가 되리라고 기대를 한껏 높인 적이 있었다. 목포라는 도시는 친환경 모빌리티 특히 자전거가 성공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 도시의 총면적이 51km<sup>2</sup>에 불과하고 강과 바다로 가는 길목에 있으며 주요 섬들이 다리로 연결이 되어있기 때문이다.

4대 강 중심의 국토종주 자전거 길에 더해 목표는 바다로 향하는 섬종주의 기대감을 라이더들에게 심어주었다. 4코스 암태도, 6코스 비금도 등 천사섬 자전거 투어 라이딩 코스(8코스)를 비롯해 신안의 주요 섬들은 많은 동호인에게 이미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런데도 '자전거 도시 브랜드화 지원사업' 3년이 지난 지금 목표는 얼마나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가 되어있는지 궁금하다.

영산강 자전거길은 담양에서 시작해서 목포로 이어지는 244km 구간을 의미한다. 지금 자전거터미널이 위치한 영산강 카누 경기장 인근이 최종 인증센터이고, 자전거 길도 여기서 끝이 난다. 하지만 목포 자전거길 여정은 여기서 시작이다. 자전거를 타고 섬으로 들어가려면 선창 혹은 북항으로 가야 하는데 선창으로 가는 자전거 길은 그나마 갯바위 인근 1km 정도 개설되어 있고, 이후는 차도를 이용하거나 보도를 이용해야 한다. 북항으로 가려면 좀 더 험난한 여정이 이어진다. 석현동까지 **보차도** 구분이 모호한 도로를 이용해 자전거를 타고 가다 이로웰빙공원 자전거길을 이용해 연산동까지 이동 후 주택가와 도로를 이용해 북항에 도착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목포에는 산정동에서 시작해서 석현동에서 끝이 나는 철도 폐선부지를 이용한 자전거 길이 유일하다.

지난 3년간 목포시의 자전거 활성화 정책 모델은 완전히 실패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목포시가 자전거 활성화 정책에 손을 놓는 동안 공유 킥보드 서비스가 청소년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자전거는 과거 누렸던 일상에서 교통수단의 자리를 빼앗겨 버리고 동호인 중심의 고급 취미로만 비치게 되었다.

**목 포 구 시내에서** 자전거를 타는 행위는 무척이나 위험한 일이다. 특히 과거 우리들은 너무나 당연했던 자전거 타고 등하교가, 지금 아이들에 적용하면 흔쾌히 허락할 부모가 있을까 싶을 정도다.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았다. 인프라의 문제이고, 안전의 문제이다.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을 준다면 건강에도 좋고 즐거운 자전거 타기를 권장하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는가?

목포는 면적이 51km<sup>2</sup>에 불과한 아주 작은 도시이다. 지금도 자전거를 타면 1시간 이내, 도로정비가 잘되어 있다면 30분 이내면 어디든지 도착할 수 있다. 자전거 도로가 차도를 점령한 **도시** 파리처럼 차 없는 도로를 위한 자전거 활성화 모델을 지금이라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자전거는 인류가 발명한 가장 완벽한 친환경 교통수단이다. 이제부터라도 내연기관을 향한 자전거의 역습을 도와야 한다.





“

## 불편함을 견디는 불편한 마음

글 | 이정석 회원/진보당 목포시위원장/기후위기 목포행동(준) 대표

‘플로깅’이란 걷기 또는 달리기를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환경 캠페인입니다. 요새는 ‘줍깅’이라는 말로도 바뀌어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매주 플로깅을 통해 건강과 환경을 지키고 있는 진보당 목포시위원장 이정석입니다. 2년 전 가을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한 플로깅이 벌써 3년째입니다. 첫 모임은 단출하게 당원 3명이 양을산을 오르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산을 오르는 동안 막연한 쓰레기 줍기를 많은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양을산 정상에서는 꼭 해내고야 말겠다는 소박한 다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먼저 활동가들에게 플로깅이 어떤 의미인지 설득했습니다. 이걸 왜 해? 이런다고 뭐가 달라지나? 했던 사람들도 플로깅을 경험하면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주민들이 고생한다고 건내 준 인사로 플로깅 참여 인원이 점점 늘어났고 이제 대단지 아파트 주변을 청소하는 주말 100분 플로깅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무엇보다 지역의 자생 단체,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 등 환경문제를 위해 힘을 보탠 시민들의 참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우천이나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을 제외하고 매주 진행했던 플로깅이 지난 주말 70회, 누적 참여자 2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의 얼굴이 기억납니다. 고맙습니다.

목포 시내에 플로깅을 진행하는 모임이 제법 많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으로 플로깅을 선택한 사람들에게 한 가지 더 제안하고자 합니다. 플로깅을 하다보면 대부분의 쓰레기가 일회용 플라스틱 컵과 플라스틱이었습니다. 버려진 것을 치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처음부터 1회용품 생산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이야말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1회용품은 얼핏 보면 값이 매우 싸고 편리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거대 기업과 기득권의 돈벌이에 의해 파괴된 환경에 대한 값은 빠져있습니다. 바다로 흘러들어간 미세플라스틱을 제거하는 비용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통해 조금 더 본질적인 문제로 접근했으면 합니다.

1회용품이 없어지면 당장은 우리 삶이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자녀들도 우리가 올려다보았던 푸른 하늘과 더위를 식혔던 맑은 계곡물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권리를 저당 잡은 채 누리는 편리함이 과연 온전히 우리의 권리일까요? 저는 여러분들도 1회용품 앞에 마음이 불편해졌으면 합니다. 결국 그 불편한 마음이 일회용품이 사라진 생활의 불편함을 감내할 수 있는 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제 부인은 2년 전부터 천으로 된 달거리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번 세탁하고 말리는 것이 불편한 일처럼 보였지만 지금은 그저 일어나 세수를 하는 것처럼 일정한 루틴으로 삶에 자리 잡았습니다. 결국 불편함도 우리 삶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 ‘내 몸이 증거다’를 읽고

글 | 김태수 회원/에코리딩 동호회

## ※ 주식회사 RB코리아

세탁용 표백제 ‘옥시크린’으로 유명한 생활용품업체. 동양화학그룹의 생활용품 제조분야 계열사 (주) 옥시로 출범, 영국 레킷벤커저 사가 2001년 인수하여 옥시레킷벤커저 사로 이름을 바꾸어 표백제, 방향제, 살균제 등을 판매했다. 2011년부터 발생한 가슴기 살균제 피해자로부터 유해 살균제 제조사로 **지목받았고**, 손해배상과 사과를 요청받고 있으며, 불성실한 사과와 배상으로 법정 다툼이 진행 중이다. 2014년 RB코리아로 사명을 바꾸었다.

▼

**1,2부**로 구성된 이 책은 가슴기 살균제로 인해 한 사람과 그 가족의 모든 것이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기록이다. 생때같은 자식을 먼저 보낸 어머니, 한쪽 폐 절제를 받기 위해 수술실로 어린 아이를 들여보내고 새까맣게 속이 타들어 간 어머니, 아픈 아이들 셋이 괜찮아질 때까지만 당신의 몸이 견뎌주길 바라는 어머니, 가족 3명을 망인으로 만들고 말았다는 자책으로 괴로워하는 이가 자신과 가족들의 몸에 나타난 증거를 통해 기록하고 있다.

> 가슴기 살균제로 사랑하는 가족을 보내야 했던 이들은 “내가 가슴기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부지런해서 그냥 물 때 청소를 귀찮게 생각하지 않고 했더라면, 사지 않았더라면, 살균제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면 하는 꼬리를 무는 후회의 속삭임이 가슴을 찢어 놓는다.”고 절규한다.

피해자들은 대기업이 만들고 정부에서 안정성을 인증한 제품에서 이런 독성 물질이 뿜어져 나올 줄은 정말 몰랐다고 울부짖는다. 이들은 집안의 가슴을 위해, 호흡기가 약한 아이를 위해,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 ‘정상스럽게’ 넣은 살균제가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일상을 송두리째 빼앗아 갈 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한다.

책을 통해 자신의 몸에 나타난 증거를 기록한 가슴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확실한 피해 사실 인정과 그에 따른 적절한 치료와 보상이 하루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었던 가슴기 살균제 사용.

생활제품에 의한 세계 최대 화학물질 참사.

자신들의 몸에 나타난 증거를 똑바로 봐달라는 피해자들.

가슴기 살균제 참사에 대한 피해자들의 피맺힌 외침에 이제 우리 사회가 답을 해야 하는 이유다. 가슴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자들의 참상을 통해 알 수 있듯, 화학제품의 독성으로 인해 피해는 인체 모든 기관으로 확산, 전이되며 **신경계와 유전자에도 치명적 타격을 가한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단순히 화학물질에 의한 피해가 아니라 방사능 오염에 의한 피해에 버금가는 후과”를 남긴 것이다.







5월

2

- 02일(월) 가슴기살균제 참가 옥시-애경 불매운동 **회원안내**, 피켓 제작 / 운영회원 공고안 초안 작성 / kbc 최승춘 의장 인터뷰(민주당 은폐 행태 지적) / 소식지 연구성안 회의
- 03일(화) 에코리딩 모임 / 홈페이지 업데이트(공익법인 재산보고서 등) / 해수부 항만정책과장 면담 결과 성명서 초안 작성 / 생태기행 웹자보 **작성** 카톡 발송 / 6.15집행위 회의
- 04일(수) 새활용 프리하당 준비회의(온라인)
- 06일(금) 운영회원 모집 공고
- 09일(월) 옥시-애경 불매운동 계획 / 선발장 견학 관련 자원순환과 논의 / **목포유달초** 환경교육
- 10일(화) 옥시-애경 불매운동 기자회견문 작성 / 주간회의 / 615집행위 / 바다식목일 카드뉴스 제작 SNS홍보
- 11일(수) 2030특위 창립기념행사 계획 / 목포 석현초 환경교육
- 12일(목) 옥시-애경 불매 운동 선포 기자회견(롯데마트) / 사무국처장단 회의
- 13일(금) NGO칼럼 시민신문 기고 / 함평중학교 환경교육 / 6.1지방선거 후보자 토론회 실무회의 / [기자회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집단적 2차 가해 중단하라
- 14일(토) 시민·회원과 함께하는 생태기행 (목포 5월 민중항쟁 사적지 19명) / 환경기자단 **OF** / 전남 5.18 민중항쟁 기념행사(환경부스 운영)
- 16일(월) 함평보건고등학교 환경교육
- 17일(화) 함평보건고등학교 환경교육 / 안좌 **폐염점** 태양광 수질오염 **조사 관련 기관 문의** / 6.15집행위 회의 / 다이어트 모임
- 18일(수) 42주년 5.18민중항쟁 기념식(근대역사 2관, 추모부스(목포역), 문화제(평화광장) / 농아인 협회 환경 교육 / 소식지 **주소 라벨 작업**
- 19일(목) 새활용 프리하당 준비 회의(아름다운가게)
- 20일(금) 새활용 프리하당 홍보 이미지 작업 / 섬지역 **정화활동** 신청서 작성 / 세계 꿀벌의 날 SNS 홍보
- 21일(토) **갯벌을 걷다**(압해도, 가란도)
- 23일(월) 농아인협회 환경교육 / 환경감시단 중간평가 회의
- 24일(화) 소식지 발송 (518통) / 다이어트 모임 / 함평중학교 환경교육 / 소통과연대 [기자회견]목포시민 주권자의 알 권리, 시민 정책 토론회를 무산 시킨 김중식 후보에게 목포시민사회단체는 유감을 표한다
- 25일(수) 기자회견(전국동시지방선거 목포시장 입후보자 버스 정책 질의)
- 28일(토) **가정지원센터** 환경사랑 부스 운영 **가**
- 30일(월) 창립25주년 행사 준비(티켓, 홍보자료 등) / [성명서] 시민의 건강과 환경오염의 우려가 큰 목포시의 소각장 건설 졸속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 5월 12일(목) [기자회견]옥시-애경 불매 운동 선포



• 5월 13일(금) [기자회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집단적 2차 가해 중단하라



• 5월 14일(토) 시민·회원과 함께하는 생태기행 (목포 5월 민중항쟁 사적지)



• 5월 18일(수) 42주년 518민중항쟁 기념식(근대역사 2관, 추모부스(목포역), 문화제(평화광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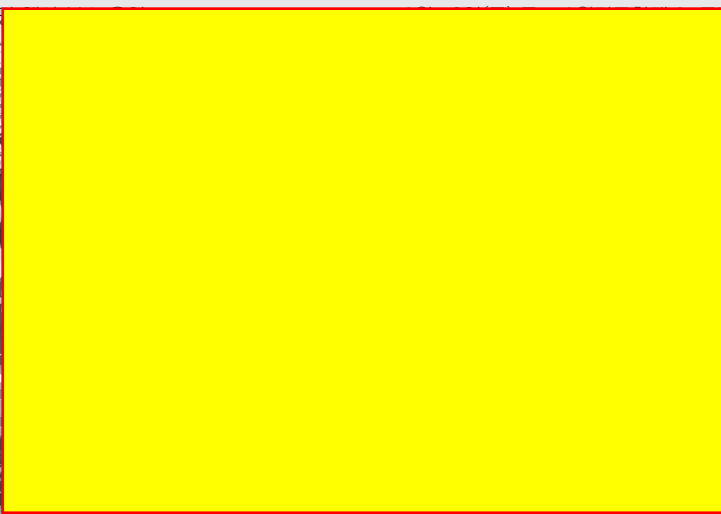




6월

- 02일(목) 해안쓰레기모니터링(해남 목동리, 진도 하조도) / 새활용 장터, 프리하당 행사 준비
- 03일(금) 프리하당 행사준비 / 생태기행 안내 웹포스터 작성, 배포
- 04일(토) 새활용 장터, 프리하당 행사 부스 운영
- 07일(화) 바이오템 해변정화 활동 신청서 제출 / 창립25주년 행사 준비(판매 물품 정리)
- 08일(수) 함께사는 길 우편발송(29통) / 창립25주년 행사 준비(티켓시안, 판매 물품 주문 등) / 2030특별위원회 회의
- 09일(목) 백년초등학교 환경교육 / 자원순환과 사무국 내방 면담
- 10일(금) 목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환경교육 / 6월항쟁 35주년 기념식(오거리문화센터)
- 11일(토) 시민·회원과 함께하는 생태기행-목포 옛길(26명) / 청소년환경기자단(목포지역 새 탐조/12명)  
/ 6.10민주항쟁 35주년 전남 문화공연(평화광장)
- 13일(월) 전남 활동가 연수(~15일) 가 ( 2 3 )
- 15일(수) 6.15공동선언 발표 22돌 6.15목포지부 [기자회견](목포역)
- 18일(토) 자주평화통일한마당(목포역)
- 20일(월) 자은초등학교 환경교육 / 공원녹지와 면담
- 22일(수) 성매매처벌법 개정 촉구 전남 [기자회견](전남도청)
- 23일(목)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는 경찰장악 음모를 당장 중단하라(목포경찰서)
- 24일(금) 창립25주년 기념행사과 후원행사(만인계월컴센터 1층, 2층)
- 25일(토) 창립기념 연안환경미술행동 퍼포먼스(삼학도)

• 6월 4일(토) 새활용 장터, 프리하당 행사 준비



• 6월 11일(토) 청소년환경기자단(목포지역 새 탐조)



• 6월 25일(토) 연안환경미술행동 퍼포먼스(삼학도)

(주)보해양조/(주)수다방게스트하우스/(주)현성건설/게스트하우스 달꾸메/대신아이시티(주)/  
 더오래들/만인게마을기업/목포대성실험/시네마mm/영암일보(주)/우진건설/코롬방제과점/  
 특허사무소 다임/해바라기치과의원/감의갑(장미선)/강덕수/강동호/강명근/강복수/강석원/  
 강선애/강성휘/강영규/강영두/강제석/강종량/강창원/강철수/강혜정/고경석/고광업/고광진/  
 고광현/고성철/고윤혁/고정화/공남은/곽신영/곽용열/곽재구/구봉선/국순천/권기별/권수한/  
 기재명/김가영/김경미/김경민/김경숙/김경애/김경완/김경주/김경태/김공경/김관오/김광미/김광수/김광호/김귀영/  
 김근대/김근순/김기범/김기봉/김기철/김나영/김대중/김대현/김도관/김도형/김동욱/김동호/김명숙/김명중/김명화/  
 김명희/김무영/김미영/김미정/김미화/김민국/김민규/김민지/김병옥/김병철/김보현/김상순/김상훈/김선남/  
 김성륜/김성진/김성진/김성희/김수린/김수미/김숙자/김수미/김순영/김승현/김시연/김애숙/김애자/김양준/김영/  
 김영남/김영민/김영범/김영식/김영운/김영제/김영준/김영현/김영호/김옥/김옥미/김완석/김용구/김용진/김웅기/  
 김원이/김유경/김유현/김윤임/김은경/김은미/김은희/김음/김일용/김장원/김재민/김재영/김재혁/김정민/김정훈/  
 김정희/김중국/김중수/김지수/김지숙/김진형/김진희/김창식/김창훈/김철주/김탁/김태근/김태수/김태웅/김판삼/  
 김학주/김행연/김현곤/김현숙/김현우/김현정/김형기/김형애/김혜정/김홍안/김화영/김환석/김효정/나광봉/나양명/  
 나연운/나천귀/남명숙/남주연/노애란/노천우/류금순/류미현/류수영/류용철/류재청/마홍식/모원중/무관/문보현/  
 문성중/문성현/문원규/문정임/문지영/문호/문효산/민경관/박갑수/박경봉/박경서/박경양/박경재/박권철/박금단/  
 박기남/박기철/박기훈/박대성/박대현/박동구/박동환/박문옥/박미덕/박미정/박민규/박배선/박병구/박병삼/박상현/  
 박선옥/박성수/박성영/박성욱/박성원/박성준/박성현/박세륜/박순미/박안섭/박영운/박영철/박용/박용일/박용호/  
 박원배/박유정/박유진/박윤길/박은숙/박은정/박은화/박은희/박재범/박재신/박재홍/박정록/박종수/박종위/박지현/  
 박진/박창수/박창우/박창현/박천웅/박치균/박필수/박현/박현/박현경/박현숙/박혜숙/박화진/박희성/방창식/  
 배동희/배영식/백동진/백성숙/백재봉/변옥숙/변재영/서경수/서병권/서연순/서영선/서영숙/서영옥/서정/서정만/  
 서한배/설단숙/설지연/성보석/성상훈/소혜인/손민원/손봉현/손철주/손현/송광훈/송두호/송영미/송영준/송정미/  
 신경우/신경희/신동영/신용주/신원/신원호/신현령/안명희/안수경/안정배/양덕수/양수민/양승미/양승희/양영숙/  
 양정호/양주동/양진국/양창숙/양현주/양환/양효식/염미순/염송주/오경섭/오미선/오민임/오수진/오숙향/오승원/  
 오영출/오양근/오재록/오하늘/오현자/오현주/우성주/위라겸/위준철/유경호/유기성/유영근/유영순/유영업/유영창/  
 유원석/유은경/유은숙/유주훈/유지원/유혜정/유효진/윤기현/윤남/윤동준/윤선영/윤성광/윤성수/윤승희/윤원희/  
 윤인수/윤종인/윤종일/이경매/이경석/이경아/이경택/이광봉/이금희/이기식/이동훈/이명숙/이명희/이미순/이방수/  
 이봉섭/이상엽/이성호/이성환/이송환/이수/이순용/이승용/이승우/이승익/이승한/이승희/이영숙/이영주/이용기/  
 이용자/이용철/이우주/이원기/이일호/이재경/이재우/이재이/이재현/이정석/이정식/이종환/이주연/이준화/이지우/  
 이지현/이진아/이진형/이창일/이창현/이종완/이학승/이현숙/이현승/이현진/이형광/이형완/이혜령/이혜용/이화/  
 임경숙/임광휘/임성기/임성진/임은아/임은희/임재형/임지현/임진욱/임창욱/임태삼/임혁/임효철/장관호/장근천/  
 장근현/장동춘(박민아)/장복천/장명미/장이주/장이진/장지은/장진실/장향금/장희웅/전경남/전경란/전남실/전대열/  
 전상보/전성철/전양수/전용원/전준수/전현호/전형숙/정경순/정고운/정동욱/정병이/정상문/정성배/정수민/정순용/  
 정연수/정연우/정연희/정영주/정영호/정옥례/정우영/정유나/정유미/정유나/정윤정/정인성/정인숙/정일/정일승/  
 정재근/정종하/정중삼/정지범/정창권/정철희/정현찬/정형권/정효준/조광운/조미정/조상현/조애련/조애순/조영규/  
 조영인/조옥현/조완오/조용만/조원기/조이환/조재문/조철제/조혜향/조호빈/주성은/지이화/진선화/진성필/진지연/  
 진택근/차선미/차용만/차용훈/채희준/최경만/최경수/최국진/최규광/최근욱/최명숙/최명희/최비호/최석원/최선국/  
 최성국/최송주/최순재/최승운/최승희/최양선/최영란/최영섭/최영숙/최영철/최예화/최완수/최용선/최은규/최은기/  
 최은녕/최은주/최이문/최정관/최정삼/최정훈/최진상/최철수/최태욱/최현영/최호봉/최화영/최환석/추연성/하영성/  
 한양규/한은섭/허상진/허진홍/현인숙/홍갑석/홍성혁/홍세영/홍정우/홍택용/황선주/황순진/황형수/황혜미

**회비 납부**  
**05~06월**  
 2022년



수 입		
항 목	금 액	
회 비	개인회비	8,005,000
	단체회비	365,000
소 계		8,370,000
사업수익		110,000
후 원 금		650,000
기타수익		131,394
이자수익		34,613
예 비 비		5,238,626

## 05월

- [사업수익] • 생태기행 참가비 11만원
- [후 원 금] • 후원회원(이경택, 이봉섭, 최태욱) 15만원  
• 소식지 제작 후원(3월, 5월) 50만원
- [기타수익] • 일자리안정자금 12만원  
• 기타수익 11,394원
- [이자수익] • 예비비 이자수익 34,613원
- [5월 CMS 3차 이월]

당월수입금	14,534,633
전월이월금	2,067,077
합 계	16,601,710

지 출		
항 목	금 액	
사 업 비	교육사업	315,700
	조사연구	0
	홍 보 비	48,603
	행 사 비	100,000
	연대사업	696,880
소 계		1,161,183
회 의 비	총 회 비	0
	위원회비	49,800
소 계		49,800
인 건 비	급 여	5,987,960
	복리후생비	1,572,240
	상여금	0
	퇴직적립금	541,133
소 계		8,101,333
업무추진비	출 장 비	0
	활 동 비	160,000
소 계		160,000
사무관리비	비품구입비	0
	수 선 비	715,000
	도서인쇄비	536,000
	통신광열비	527,000
	소모품비	26,000
소 계		1,804,000
기 타	환경기금	100,000
	세금과공과금	90,290
	보 험 료	100,000
	원천징수분	71,500
	지급 수수료	539,995
소 계		901,785
당월지출금		12,178,101
통장 잔액		4,423,609
합 계		16,601,7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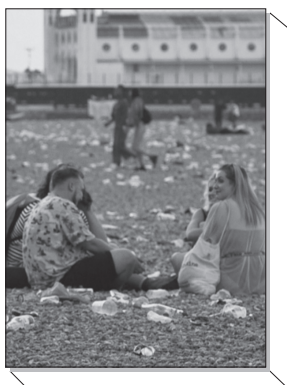
수 입		
항 목	금 액	
회 비	개인회비	9,761,000
	단체회비	450,000
소 계		10,211,000
사업수입		160,000
후 원 금		150,000
기타수익		75,000
이자수익		2,295

## 06월

- [사업수익] • 생태기행 참가비 16만원
- [후 원 금] • 후원회원(이경택, 이봉섭, 최태욱) 15만원
- [기타수익] • 일자리안정자금 6만원  
• 임재형 1만 5천원
- [이자수익] • kb국민은행 이자세금 2,295원

당월수입금	10,598,295
전월이월금	4,423,609
합 계	15,021,904

지 출		
항 목	금 액	
사 업 비	교육사업	272,000
	조사연구	0
	홍 보 비	0
	행 사 비	408,500
	연대사업	522,440
소 계		1,202,940
회 의 비	총 회 비	0
	위원회비	295,000
소 계		295,000
인 건 비	급 여	6,327,960
	복리후생비	1,448,230
	상 여 금	0
	퇴직적립금	541,133
소 계		8,317,323
업무추진비	출 장 비	33,600
	활 동 비	90,000
소 계		123,600
사무관리비	비품구입비	0
	수 선 비	0
	도서인쇄비	0
	통신광열비	307,620
	소모품비	42,750
소 계		350,370
기 타	환경기금	100,000
	제세공과금	0
	보 험 료	100,000
	원천징수분	71,500
	지급 수수료	582,790
소 계		854,290
당월지출금		11,143,523
통장 잔액		3,878,381
합 계		15,021,904



## 플라스틱 파도 Plastic Pioneers

다큐멘터리 | 84분 | 2022년

### 아직도 현재 진행 중인 충격적인 실화

영화는 저명한 과학자부터 최전선에서 활약하는 운동가, 혁신가, 디자이너에 이르기까지 정치인들과 정부가 외면하는 글로벌 위기의 해결책 마련에 힘쓰는 ‘플라스틱 개척자들’을 보여주는 다큐멘터리이다.

관객들을 심해, 산호초, 돌묵상어 출몰지역, 거대 바닷새 군락지로 데려가 이들의 생명을 집어삼키고 있는 플라스틱 재앙의 극심한 위험을 목도하게 하면서, 영화는 플라스틱 문제에 경종을 울리고 해결을 위한 행동과 조치를 촉구한다.

영국 플리머스 해양연구소의 매튜 콜 박사는 동물성 플랑크톤이 미세플라스틱을 섭취한 뒤 식사 메커니즘에 장애가 생겨 일상 기능을 수행할 에너지가 줄어드는 현상을 발견했다. 바다 위에 떠 있는 비닐봉지, 바다 깊은 곳에 잠겨있는 폐어구 등은 시간이 지날수록 잘게 부서져 미세플라스틱이 되는데 이것이 동물성 플랑크톤의 먹이가 되면서 생태계 먹이사슬에 들어간다.

동물성 플랑크톤은 원래 식물성 플랑크톤을 먹고 살면서 바다 동물의 가장 기본적인 먹이가 된다. 그런데 식물성 플랑크톤 대신 플라스틱을 섭취하면서 동물성 플랑크톤은 부화가 어려운 크기가 작은 알을 낳았다. 이는 식물성 플랑크톤에서 동물성 플랑크톤, 작은 물고기에서 큰 물고기로 이어지는 해양 생물 먹이사슬의 잠재적 붕괴를 뜻한다고 콜 박사는 설명했다.



## 생명을 보는 마음

김성호 지음 | 풀빛 | 2020년 10월 29일 출간

### “생명과학자의 삶에 깃든 생명 이야기”

《생명을 보는 마음》은 자연과 함께한 자신의 삶에 대한 소박한 기록이다. 생명과학자, 생태작가라는 수식어를 벗어나 그를 보듬어 키운 자연의 너른 품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생명이 갖는 숭고함을 써 내려갔다. 주어진 것이든 선택이었던 자연을 벗 삼아 살아온 60여 년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누군가에게 자연과 생명에 대한 존경심과 경외심을 전하는 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로 이 책을 펴냈다.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곳에도 생명은 있다. 보이지 않는 생명과 다른 모든 생명이 서로 이어져 있다. 연결 고리의 어딘가에 우리 인간도 서성이고 있다.”

“며칠 동안 새의 뒷모습만 쫓아다니다 방법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새가 나에게 오지 않으니 내가 새에게 다가서기로 한 것이다. 위장 천을 뒤집어쓰고 기어서 새에게 접근해 보았다. 효과가 없지는 않았으나 분명 효율은 떨어졌다. … 주변에 널브러진 나뭇가지를 모아 골격을 세운 뒤 갈대와 환삼덩굴 줄기를 덮어 움막을 완성했다. 새들이 움막 바로 앞까지 온다. … 마지막 길로 간다. 움막 안의 바닥을 판다. … 강의 수면 높이에 맞춰 바닥을 파내고 보니 얼음장 같은 물이 스며들어 옷은 금방 젖어 들고 우들우들 떨어졌지만 건디는 것 말고는 달리 길이 없었다.” -본문 45쪽



책과 영화를 보고 독후감이나 감상문을 보내주시면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 미세플라스틱 주의보! 콘택트렌즈 버리는 방법은?

우리 주변에서는 생수병, 빨대, 각종 용기 등 플라스틱을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플라스틱을 잘못 배출할 경우 ‘미세플라스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잘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밥상 위에 올라와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미세플라스틱 문제와 함께 콘택트렌즈 버리는 법까지 함께 알아보아요!

### 보이지 않는 위험, ‘미세플라스틱’

먼저, 미세플라스틱에 대해 알아보까요?

미세플라스틱은 5mm 미만의 작은 플라스틱 조각을 의미하며, 1마이크로미터 미만으로 작을 경우 나노 플라스틱으로 분류하고 있어요. 더 세부적으로 보면, 치약이나 세정제에 포함된 알갱이와 같이 처음부터 크기가 작은 1차 미세 플라스틱과 큰 플라스틱이 마모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미세 플라스틱으로 나뉘어요. 플라스틱은 아무리 크기가 작아져도 썩지 않고, 녹지 않아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땅에 매립될 경우 토양오염을 발생시키며, 하수구로 흘러 들어가갈 경우 정수처리 과정에서 걸러지지 못해 하천이나 강, 바다로 유입될 수 있어요. 이 경우, 수중생물의 먹이가 돼 우리 식탁으로 다시 올라올 수 있답니다.



### 무심코 ‘이 곳’에 버린 콘택트렌즈, 미세플라스틱이 될 수 있다?

시력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콘택트렌즈,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버리나요? 2018년 미국 애리조나 대학교 환경보건공학센터 연구진이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일회용 콘택트렌즈 사용자의 15~20%가 세면대나 변기 등에 렌즈를 버린다고 해요.



이렇게 버려진 렌즈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자연히 하수처리시설로 흘러 들어가며, 이 과정에서 분해 및 마모가 될 수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수처리시설에서는 미세플라스틱을 거를 수 없기 때문에, 이는 고스란히 자연으로 돌아오게 되겠죠? 변기에 콘택트렌즈를 버리는 행위는 절대 금물입니다.

그렇다면, 콘택트렌즈는 어디에 어떻게 버려야 할까요? 간단히 말해서,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버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배출할 경우 미세플라스틱 문제 걱정 끝! 정말 쉽죠?

이 밖에도 일회용 마스크나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은 꼭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고, 알갱이가 포함된 스크럽 형태의 세탁 세제 등은 미세플라스틱 함유 여부를 고려해 구입해주세요. 또, 합성 섬유 또한 세탁 과정에서 미세플라스틱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니 되도록이면 천연 섬유로 된 옷을 소비하는 것 또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 참조



# 연안환경미술행동전

목포연안환경미술행동은 인간들이 편리함 때문에 사용하는 비닐과 플라스틱이 바다로 흘러들어가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는 문제점을 미술인들과 함께 알리는 미술행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연안도시에서 진행되었던 미술행동은 지난 6월 25일 삼학도에서 작가들과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7월 22일~28일까지 목포오거리문화센터에서 작품 전시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사)목포환경운동연합 창립25주년 축하 미술 작품 판매 안내

연안환경미술행동 미술인들이 (사)목포환경운동연합 창립25주년 축하를 위해 기증해주신 작품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문의> 사무국 T.061) 243-3169



전혜옥



진네발란 25.5cmx34.5cm 판화



검은머리물떼새1 25.5cm x 34.5cm 판화



검은머리물떼새2 17cm x 25cm 판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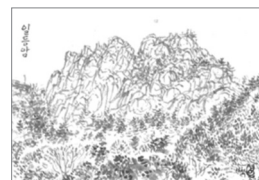
박성우



유달산 38cm x 20cm 한국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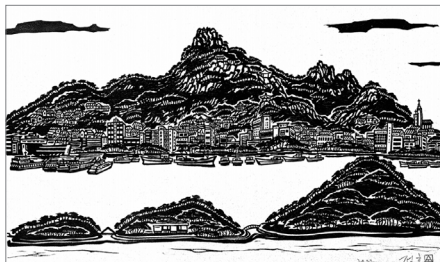
노적봉 38cm x 20cm 한국화



일등암 38cm x 20cm 한국화



전정호



항구 74.5cm x 47cm 판화

※ 새롭게 목포환경운동연합의 벗이 되어 주신 분들입니다.  
환영합니다. (2022. 03. 16. ~ 2022. 05. 10.) 2022. 05. 15. ~ 2022. 07. 25)

박병삼(김경안) | 위라겸(자발적) | 다 겸(자발적) | 김말금(자발적) | 김경주(자발적) | 정미라(이현승)  
(유)세라돌(이현승) | 담을꿈협동조합(이금희)

※ 목포환경운동연합과 강청은  
포장재 간소화로 쓰레기를 줄이고 환경을 지키고자 합니다



물비누 | 세탁용 (1g당) : 8원    고행비누 | 세탁용 (250g) : 1,500원  
          | 주방용 (1g당) : 9원       | 주방용 (250g) : 2,500원

집에서 사용하던 용기를 가져 오시면 필요한 만큼 구매가 가능합니다

▶ 판매시간 : 평일 (국경일 제외) 9:00 ~ 18:00   ▶ 문의 : (사무국) 010-8243-3169

※ 폐식용유를 가져오시면 강청비누로 교환해 드립니다




자연을 대출하면  
미래는 파산합니다.

**김종국** 회원

※ 이미지 참고(한국언론진흥공단)



**포마린**

혼다 V6 / 아마하 V6·V8 커맨드 링크 전문점



대표 **최은기**

T. 061-272-0118 / 010-9492-4707  
전라남도 목포시 청호로 220번길 21-11

**해바라기치과**

원장 이 해 송




T. 010-2654-2875, 061-279-2886  
전라남도 목포시 청호로 172  
3층 해바라기치과(산정동)



일회용품 사용으로  
자연은 허리가 휩니다.

**손현** 회원

※ 이미지 참고(환경부)




만인살롱  
SALON Man-In

운영시간: 화~일(월요일 휴무)  
조식: 08시~10시(가정식 뷔페)  
점심: 12시~14시(황태국 or 비빔밥)

전남 목포시 마인게터로 31  
061-244-1002

친환경 청소전문



**더슈퍼맨**

사단법인 한국 방역협회 등록  
사단법인 한국 건물 위생 관리 협회 등록

유리창 관리청소  
입주·이사청소  
바닥왁스 코팅  
상가·사무실 청소  
병원·학교·관광사  
소독 방역 서비스  
건물 위생관리

대표  
**장창화**  
010.4656.1100

[광고문의] 목포환경운동연합 사무국(061-243-3169) : 위 광고는 소정의 광고비로 제작되었고 광고비는 연말정산 기부금 처리됩니다.